

### 1 찬양과 기도

- 찬송 : 새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### 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#### ·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

- 1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.
- 2 바로는 그의 두 신하,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.
- 3 바로는 그들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.
- 4 경호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종들게 했습니다.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.

#### · 두 관원장이 꿈 때문에 근심함

- 5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,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.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.
- 6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
- 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. "오늘은 두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?"
- 8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"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."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"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."

### 3 묵상하기

바로 의 신하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되고, 요셉이 그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?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을 역사 속에 세우시려는 큰 그림을 차례차례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. 한편, 그들을 모시며 작은 표정 변화까지 포착할 정도로 대충 하는 것이 없던 성실한 요셉은 꿈 풀이라는 인생의 반전을 맞을 중요한 기회를 잡습니다. 이때 “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”(8절)라고 한 요셉의 고백에 주목하기 바랍니다.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주 당연한 실재이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. 요셉의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내게도 있기를 바랍니다.

### 4 적용하기

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지만 사람들의 눈초리가 신경 쓰이고, 받아들이지 못할까 싶어 그것을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방 신을 섬기는 땅에서 당연하다는 듯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요셉의 모습을 본받기 바랍니다.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.

###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- 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기보다 상대의 작은 표정까지 살필 만큼 일상에 성실했던 요셉처럼,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‘작은 것’은 무엇인가요?
- ② 교회 안에서와 달리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망설이게 된다면,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### 6 기도하기

-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- ②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며 제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세요.
-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
### 1 큐티하기 전 기도

- 찬송 : 새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### 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 1 2 3

- 3 바로는 그들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.
- 4 경호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.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.
- 5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,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.
- 6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
- 7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. "오늘은 두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?"
- 8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"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."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"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?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."

#### • 궁급 사전

- \*시중:옆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함
- \*관원장: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던 높은 자리의 관리
- \*침울:걱정 때문에 마음이 우울함

#### • 말씀 씨앗

요셉이 갇힌 감옥에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들어왔어요. 요셉은 두 신하의 심부름을 했지요. 어느 날 두 신하가 각각 다른 꿈을 꾸었는데, 그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며 걱정했어요.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.

3 말씀새싹 - 요셉은 꿈을 풀이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나요?  
알맞은 답의 번호에 ○표 하세요. (8절)



4 말씀 열매 - 걱정이 있나요? 하나님께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보세요.

하나님,

**누가:** \_\_\_\_\_

**언제:** \_\_\_\_\_

**어디서:** \_\_\_\_\_

**무엇을:** \_\_\_\_\_

**어떻게:** \_\_\_\_\_

\_\_\_\_\_ 했어요. 도와주세요.



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.

5 기도하기

하나님,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